

불교학연구회

‘제주불교’ 겨울워크숍

옛날 제주 물케(현 한수리)의 한 어부가 배를 타고 바다를 나섰다가 태풍을 만났다. 표류 끝에 어부가 도착한 곳은 외눈박이 땅이었다. 그 곳의 영등대왕이 떠나려 온 어부를 살피며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왔다.

“어부야, 돌아갈 때는 ‘개남보살’을 부르고 돌아가라.”

“네, 알겠습니다. 개남보살, 개남보살...”

어부는 영등대왕의 가르침대로 ‘개남보살’을 부르며 바다길을 나섰다. 물케에 거의 다다를 무렵 어부는 생각했다.

“이제는 ‘개남보살’을 부르지 않아도 되겠지.”

어부가 ‘개남보살’ 칭명하기를 멈추자 순간 태풍이 불기 시작했다. 어부는 표류해 다시 외눈박이 땅으로 되돌아가다.

외눈박이들이 개를 데리고 물러가며 어부를 잡아가려는 것을 영등대왕이 돌(왕석) 밑에 어부를 숨겨 다시 목숨을 구했다.

“반드시 도착할 때까지 ‘개남보살’을 부르도록 하고, 집에 가서는 음력 2월 초하루에는 나를 생각하라.”

영등대왕의 가르침대로 어부는 ‘개남보살’을 열심히 부르며 무사히 집에 도착했다. 하지만 영등대왕은 어부를 숨겨줬다고 해 외눈박이들이 죽어 세 토막을 내 바다에 던져버렸다. 영등대왕의 머리는 제주 우도 해안에 떠올랐고, 몸체는 제주 칠발이당 아래에, 발 부분은 물케 매출물 위에 올랐다.

영등대왕의 도움으로 물케로 돌아온 어부는 생명의 은인인 영등대왕의 흔적을 모아 영등하르방당(현 제주시 대림하동 1888번지 소재)을 세워 영등왕아버지의 혼을 위로했다.

제주의 영등대왕신 전설이다. 그 후로 제주 어부들은 풍랑을 만나면 ‘개남보살, 개남보살...’하며 ‘개남보살’을 찾는다. 영등대왕이 어부에게 알려준 ‘개남보살’은 누구일까?

불교학연구회(회장 본각)는 1월 28일 제주 약천사에서 ‘제주 불교의 과거 현재 미래’를 주제로 2010년 겨울워크숍을 개최했다.

행사에서 문무병 전통문화연구소 이사장은 “개남은 제주 방언으로 개남보살은 관음보살”이라고 주장했다.

문 이사장은 특강 ‘제주 민속과 불교’에서 “제주불교는 아시아문화의 중심이다. 제주불교의 특징은 불교와 무속이 융합해 동전의 양면처럼 공존해 온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한금순 제주불교사연구회 연구원은 ‘제주 불교의 과거 현재 미래’ 주제의 특강에서 고려시대 영등제가 조선의 영등절을 거쳐 근현대에 이르러 영등굿으로 바뀐 사례 등을 통해 오늘날 제주불교가 갖고 있는 특징이 역사적으로 형성된 과정을 설명했다.

특강에 이은 종합토론에는 문무병 이사장, 한금순 연구원 등 발표자를 비롯해 성원 스님(약천사 주지), 수암 스님(금봉사 주지), 고대만

불무 습합된 문화의 보고

<佛巫>

<寶庫>



불교학연구회가 1월 28일 제주 약천사에서 개최한 겨울 워크숍 토론 모습. 왼쪽부터 고대만 교수, 성원 스님, 수암 스님, 문무병 이사장, 한금순 연구원, 이병욱 박사.

제주 영등대왕신 전설의 개남보살은 관음보살

무속과 불교 만나 제주불교만의 특색 만들어

제주대 교수, 이병욱 고려대 외래강사가 참석해 제주불교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수암 스님은 “불교와 무속이 습합돼 제주불교를 형성했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면서 “섬 지역 특성상 외부문물의 유입이 제한적인 제주는 육지와 달리 전통불교의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님은 “제주불교는 고구려 · 백제 · 신라 등 삼국이 탐라국과 무역관계를 통해 불교를 전했다는 북방전래설과 석가모니부처의 제자들이 뱃길을 따라 불교를 전했다는 남방전래설로 나뉜다”고 설명했다.

수암 스님의 제주불교 전래설 설명에 문무병 이사장은 “제주불교의 근간은 남방불교일 것”이라고 의견을 더했다.

문 이사장은 “불교는 물길 따라 바다로 올라왔고, 무속은 시베리아에서 바람길을 따라 내려왔다”면서 “무불(巫佛) 습합은 고려시대 이전부터 이어져 육지에서는 조선시대부터 개지기 시작했지만 육지의 유교적 전통이 제주에서는 발을 디딜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무병 이사장은 “북방에서 전해진 불교는 수정사 등 제주 북부지역에 자리 잡았고, 남방에서 전해진 불교(전통제주불교)는 제주 남부를 비롯해 한라산 기슭 등에 자리잡았다”고 설명했다.

성원 스님은 “문화의 시간차 일뿐 제주불교가 육지불교와 특별히 다른 점이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특히 스님은 제주가 아닌 한국불교를 ‘육지부 불교’라 표현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스님은 “육지에서는 전통종교인 마을의 당 등이 근대화를 거치며 순식간에 사라진데 반해 제주에서는 그 훼손이 덜했다”며 “제주의 신앙형태는 육지보다 훨씬 순수하다”고 강조했다.

신행 형태에 대해서도 성원 스님은 “잡선과 기도정진만이 불교의 바른 신행이며, 불교대학에서 공부하는 것이 불자의 바람직한 모습이라는 주장은 불교의 순수성을 훼손하는 것이다. 종교는 단순한 믿음에서 비롯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님은 “제주의 불교세는 전국 어느 곳보다 우세하다. 이는 불교가 경전, 참선, 공사상 등의 지금까지 알려진 것과 다른 형태로 일상생활에 깊이 파고들어가 일궈낸 결과”라며 “제주불교를 지나치게 무속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기 보다는 제주불교의 우수성을 바로 알아 육지부 불교도 참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대만 교수는 “제주 불교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데 있어 무속과 불교의 관계는 중요한 포인트”라면서 “이는 제주불교 뿐 아니라 한국불교 전체에 얽힌 쟁점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고 교수는 “지금까지 선행연구가 제주의 미륵신앙과 무속에 담겨진 미륵신앙만을 연구했으나, 타지역의 미륵신앙과도 종합해 연구한다면 제주불교의 독특함이 더욱 부각될 것”이라 제안했다.

또, “제주 당 신앙 가운데 ‘본풀이’(제주 전통제의)의 작성자와 형성시기를 밝히면 불교와 무속의 습합과정을 보다 명확히 밝힐 수 있

을 것”이라 강조했다. 제주불교의 원류와 변천과정을 점검한 데 이어 미래에 대한 담론도 오갔다.

한금순 연구원은 “제주불교의 특징 중 하나가 (사찰에서의) 신중기도 대신에 가정에서 안택기도를 하는 것”이라면서 “제주 연등굿이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되는 등 문화에 대한 관심은 늘었지만 제주도민의 신앙심을 발휘하는 모습은 열어지고 연구자 접근만 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한 연구원은 “제주사람으로서 제주불교만의 신앙형태에 대한 애정은 있으나 미래 제주 불교의 모습은 육지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참선과 경전, 기도 등을 하는 형태로 바뀔 것”이라고 진단했다.

문무병 이사장은 “고려시대에는 불교도 무속도 국교로 취급됐다. 한국불교의 전통적인 모습이 가장 잘 보존된 곳이 제주”라면서 “산신굿을 산신불공으로, 용왕제를 용왕불공이라 부르며 완전한 토착화를 이룬 것이 제주불교의 강점”이라고 주장했다.

고대만 교수는 “과거의 무불시대도 또 다른 모습으로 도래하지 않으려면 한국 불교계의 제주불교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주문했다.

수암 스님은 “제주에는 오랜 기간 무불시대 가 이어져 왔지만 최근에는 제주의 무속인수가 감소하고 있다”면서 “(육지)불교의 것대로 무속을 배척할 것이 아니라 무속인의 영역을 불교가 흡수·수용해서 제주불교를 세련되게 발전시키는 것이 제주 불교인의 몫”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성원 스님은 “제주불교에는 육지에 없는 ‘뫼타클립’이라는 신행단체가 있다”면서 “육지부의 거사법, 라이온스클럽 등과 비슷한 신행단체로 제주에만 6개 지부를 갖추고 재가자 독자적으로 신행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소개했다.

스님은 “육지에 있을 때에는 재가자들이 스님 권위에 눌려 있다는 생각도 했다”면서 “제주에서는 (무속과 결합돼 있어서 그런지) 스님 없이도 독립적으로 신행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성원 스님은 “제주 사찰마다 신도회가 크지 않은 것도 모든 불자들이 여러 사찰에 걸쳐 있으면서, 스님 없이 신도회 자발적인 모임 갖고 있기 때문”이라 분석했다.

스님은 “약천사 불교대학도 잘 운영되는 것을 보면 (스님이 의존하지 않고) 재가자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것이 제주불교의 특징”이라며 “제주불교의 좋은 문화가 확산돼 개인적 신앙을 바탕으로 조직문화가 불교에 긍정적 에너지로 작용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불교학연구회는 29일 제주대 제주국 제교류회관에서 ‘중국어어와 불교’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문화재청 반대로 반환 불가?

문화재제자리찾기 해문 스님 주장



“일본 강점기에 반출돼 미국 보스턴 미술관이 소장한 3불(정광보 · 가섭보 · 석가모니불) 2조사지공 · 나옹 스님의 사리가 문화재청의 반대로 반환이 불가한 상황이다.”

해외로 반출된 우리 문화재는 10만 여점. 해외반출 문화재의 환수에 대한 전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지금, 문화재환수에 앞장서야 할 정부가 이를 막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문화재제자리찾기(사무총장 해문 · 사진은 1월 25일 조계종 전법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화재청의 반대로 보스턴 미술관이 소장한 3불2조사의 사리가 반환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화재제자리찾기는 2009년 여름, 미국 보스턴미술관을 방문해 미술관이 소장한 라마탑 형사리구에 3불2조사 사리가 봉안돼 있음을 확인하고 이의 반환을 추진해왔다.

해문 스님 등이 보스턴미술관 측에 사리의 종교적 의미 등을 지속적으로 전달한 결과, 보스턴미술관은 사리만이라도 한국 반환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3불2조사 사리의 반환이 무산 위기에 처한 것은 지난해 10월, 해문 스님과 보스턴미술관 관계자, 이견무 문화재청장이 사리 반환 등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문화재청장은 “사리만의 반환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보스턴미술관은 “사리 반환도 없던 것으로 하겠다”며 태도를 바꿨고, 해문 스님의 계속된 요청이 있자 “한국 정부의 동의가 있을 시에는 사리를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

해문 스님은 “문화재청이 ‘사리와 사리구가 분리될 수 없다’며 사리의 반환을 막은 것은 분

명한 잘못”이라며 “해외반출 문화재의 귀환에 있어 ‘기증’과 달리 ‘반환’에 적합한 원칙을 적용하려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문화재청은 “사리와 사리구를 하나로 보며 사리구를 제외하고 사리만을 반환받을 경우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어 사리만의 반환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문화재청의 주장은 그간 전례에 비춰볼 때 타당성이 떨어진다. 보물 제366호 경주 감은사 출토 사리장엄구는 사리와 분리돼 사리만 1996년 같은 사람에 봉안돼 있다. 보물 제928호 봉인사 사리탑도 같은 경우이다. 정부는 1987년 일본 오사카시립미술관에서 기증 받은 사리장엄구와 사리를 분리해 사리는 봉인사로 돌려보냈다.

일괄문화재 중 부분만을 돌려 받을 수 없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정부는 1996년 일본 야마구치 현립대학이 소장한 ‘데라우치 문고’의 일부 반환을 지지·승인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문화재청 산하 공주박물관은 일본 강점기 백제 송산리 고분을 발굴했던 가루베의 유족들로부터 2006년 기와 6점을 기증받으며, “돌려준다”고 하는데 반환을 수도 없이 않느냐”고 정당화한 전례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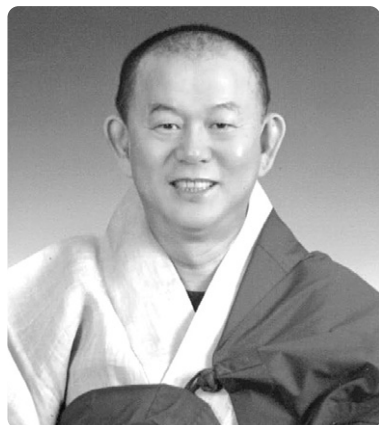
당시 문화재계에서는 “가루베의 도굴행각에 면죄부를 줄 수도 있으며, 훗시 있을지 모르는 다른 ‘약탈 문화재’가 반환될 길을 열어 막을 수 없다”는 우려가 컸었다.

해문 스님은 “사리와 사리구가 함께 박물관에 있는 경우는 대만하 드문 예”라며 “현재까지 해외소재 우리 문화재 중 보스턴미술관을 제외하고 ‘사리와 사리구’가 함께 봉안된 경우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님은 “문화재 반환은 각각의 건마다 다른 문제가 존재한다”며 “뒷날의 일을 미리 걱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조동성 기자

세계제일 적중률을 자랑하는 구단구궁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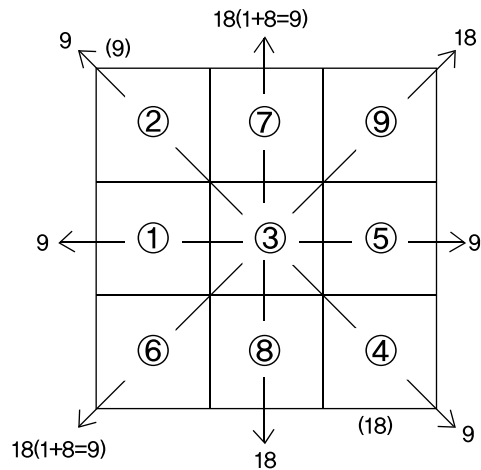
집중 2주완성
저자 : 법파종현(정흥교) 큰스님 직강



· 녹아선원장 · 불교학과교수 · 구단구궁법 저자 · 본 대학에서만 직강

강 의
월 · 수 · 금 : 오후 2시 - 5시
토 · 일 : 오후 1시 - 5시
직접상담 : 010-7415-0803

- 손으로잡아 5분안에 길흉,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혼인, 부귀, 이사방위, 입찰경매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미래를 예측함
- 사찰 포교당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경년년 정초신수 3분안에 가능함. ■ 신통법으로 조상천도 삼재 풀이함.
- 교육이수 후 즉시 영업 가능함
- 구단구궁법은 법파종현 큰스님께서 만든 특단의 학문입니다.
- ◆ 특전 ◆ ■ 2월 등록자 특별정액(50%) ■ 방문시 교재판매 ■ www.psa.or.kr 홈페이지 참조



구단구궁 원리도

◆ 년비결문구수가 ④ ③ ②가 나왔을 때 월·일·시의 해당 구궁문구수를 알아보는 그림

※월(月)운을 나타내는 비결문구수

해당월(月)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해당비결문구수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①	②	③	④	⑤

※일(日)운을 나타내는 비결문구수

날 짜	1	2	3	4	5	6	7	8	9	10	11	12
비결문구수	⑥	⑦	⑧	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날 짜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비결문구수	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①	②
날 짜	25	26	27	28	29	30						
비결문구수	③	④	⑤	⑥	⑦	⑧						

※시(時)운을 나타내는 비결문구수

비결문구수	②	⑦	⑨
해당 시간	19~21시	11~13시	15~17시
비결문구수	①	③	⑤
해당 시간	17~19시	21~23시	
비결문구수	⑥	⑧	④
해당 시간	09~11시	13~15시	23~01시

